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따른 북한의 인식변화

- 한국전쟁 시기(1950-1953)를 중심으로 -

윤희수 (성균관대학교)

연구요약

냉전시기 초반부에 한반도는 한국전쟁(1950-1953)을 경험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총성 없는 차가운 대립(Cold War)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에는 열강의 이권다툼과 국내 민족 갈등이 겹쳐 치열한 열전의 공간이 도래했다. 냉전시기 외교정책을 이끈 케넌(George F. Kennan)의 대(對) 공산권 봉쇄전략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비롯한 타이완·인도차이나 반도를 배제하는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북한의 공격적 행태를 야기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당시 북한은 애치슨 라인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배제로 이해했고, 이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냉전시기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케넌의 봉쇄정책과 애치슨의 한반도 개입정책은 북한의 행동양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으며, 중국적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화, 관여, 봉쇄, 물백, 혼합 등 다양한 외교정책 옵션 중에서 북한이 한국에 취한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질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즉 미국의 외교 정책이 북한의 대남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적으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 있어 미국, 북한, 한국 삼각체제의 행동방식을 복잡계 이론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 본 논고의 목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이라는 개별 변수 자체를 단순 시계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냉전 시기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이었던 케넌의 봉쇄전략, 애치슨라인 설정, NSC-68문서의 미시적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적 파장인 한국전쟁을 발발 시켰는지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거점방어 전략과 변경 방어 전략 변경에 의한 파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냉전당시 북한 내 정치적 상황과 정치지도자인 김일성(金日成)의 국내외적 입지를 고려한 정책입안자의 방향성, 한국 국내 정치상황과 같은 복합적인 변수들의 메커니즘을 고려한다. 초강대국들의 알력 다툼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대응과 안보전략을 취해 왔으며,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남한, 북한 각 개별국가의 상호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규명해보고자 한다.

기존 문헌들의 경우 연구대상이 어느 나라이건 간에 패권국인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전개된 냉전사와 그 파급효과를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거시적인 국제질서 차원에서 미국이 표방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북한과 한국의 안보정책 수립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찰함으로써 구조적 변수와 국내 의사결정과정 변수를 동시에 조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냉전 시기 미국의 정책과 한반도 내 지도자의 방향성, 국내적 상황의 복합 변수의 메커니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기존 논고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미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북한의 태도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내포된 공포심리와 철저한 생존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시대에

구축된 열강 대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요인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한 소련과 북한의 오인에서 비롯되었듯이, 현재 2021년의 남북 관계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우방이자 미국의 역대 최대 동맹국인 일본으로서도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일본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추론하는데 있어 이 연구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시각에서 본 냉전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패권국이 전략적 통제와 군사력을 둘러싸고 유럽지역에서 벌인 냉전은, 비 서구 사회 내 정치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탈식민화를 비롯한 제3세계의 급진적 변화는 냉전 체제 하 초강대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형성되었다. 1945년까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 냉전으로 인한 미국의 개입은 방법이 다를 뿐 식민주의의 연장이라 봐도 무방했다.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역사적 갈등을 겪어왔으며, 냉전시기 소련과 미국의 주도 하에 분단되었다.

즉 한반도 내 전쟁과 힘의 대결은 자국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구 제국들의 개입과 강대국의 이권다툼 가운데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제국주의가 점차 청산되고, 비유럽 국가들은 단계별 주권국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소 냉전체제의 절대적 영향권 하에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사자 지위 인정을 포함한 일제 지배의 불법성 역시 확인 받지 못했으며, 분단국가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국제법적 체계 하에서 2개의 형식적 주권체가 대립하는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불완전 주권을 가진 두 국가가 초강대국의 권력 위시 하에 근대이행 전쟁을 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한국전쟁은 냉전의 국제역학 논리가 파생된 열전의 장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각자 자신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외부 세력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제 해방 직후 남한에 2만 5천명의 미군을 배치했고, 친미정책을 펼쳤다. 반면 소련의 경우 조만식 등을 필두로 하는 북한 내 민족주의 세력 대신 김일성(金日成) 세력을 선택하며 북한을 장악했다. 결국 두 강대국의 냉전 논리로 인해 한반도는 분할되었다(전재성 2020).

미국전략에 따른 북한의 한국전쟁(1950-1953) 인식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관념은 미국의 전쟁 개입 전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쟁 초기 북한은 남북의 내전상황으로써 한국전쟁을 규정하고, 이승만(李承晩)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 후 북한의 내전적 전쟁관은 변화하게 된다.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참여로 인해 UN산하의 16개국이 파생적으로 전쟁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내부의 진영 대결이 아닌 국지전의 양상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는 미국 비판을 공식화하는 김일성(金日成) 연설 (1950년 12월 21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한국전쟁의 주체를 미국으로 확실히 상정하고, 남한 이승만 정부를 통해 전쟁을 도발한 미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감행한다. 즉 김일성은 양대진영론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해석하려 했으며, 소련을 평화적인 민주세력으로, 미국은 전쟁 방화자이자 전쟁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변화에는 미 공군의 내부침투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전쟁 시기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전쟁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초반에는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적 전쟁관을, 1950년대 후반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이후부터는 진영대결론적 인식을 공유했다. 이 인식은

1960년대 후반 조국해방전쟁론적 인식으로 변이하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남한 내 반공정책 강화와 한미일 동맹체제 구축에 따른 북한 내부의 위기의식에서 기인한다. 진영대결론적 인식 하에서 북한은 미국을 한국전쟁의 원인 제공자이자 침략자로 간주했으며, 국내외적 평화 수호를 강조한다. 그러나 조국해방전쟁론적 인식 이래로 평화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열망은 인민이라는 협소적 개념으로 축소되었고, 미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호전적 개념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김태우 2012).

1950년대 한국전쟁 발발 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전쟁 인식변화에는 미국의 안보 전략이 원인요소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일관되고 고정된 전쟁 인식론을 지니지 않았으며, 냉전기의 딜레마 안에서 국제관계 속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려 시도했다. 즉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은 국제정세와 북한 내부의 상황에 맞게 시기 적절히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내전적 전쟁관, 조국해방전쟁론과 양대진영론적 인식과 같은 상이한 인식이 존재했다. 중국적으로 국제사회 속 특히 미국의 힘의 추동에 의해 북한의 인식은 변이했다.

냉전 이후 북한의 인식전환과 대외정책노선

냉전기간 동안 북한은 “조국통일”을 대외정책노선의 핵심목표로 내세웠다. 따라서 해당시기의 북한 안보전략 역시 조선혁명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실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대외관계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조선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김일성 1983)”라 말하며, 통일로서 한반도 공산화를 꾀할 것을 천명한다. 이렇듯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전쟁역량을, 남한 내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노선에 걸 맞는 자체혁명역량을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의 조선혁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 세력을 도모하려 했다(김연수 2003).

미국의 한반도 개입 이후, 북한은 통일 저해요소로서 미국을 간주해왔다. 특히 50년 11월 미국의 무차별 공중폭격을 통한 대북압살 경험과, 한국전쟁 시기를 통한 피포위 의식 강화는 북한의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 위협의식을 증대시켰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김일성은 해당 군사훈련을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며, ‘핵전쟁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로 규정한다(김일성 1992).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핵위협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공포는 지속되었다.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한반도의 산악 지형을 활용해 북한4대군사노선 중 ‘전 국토 요새화’를 명시했다. 당시 북한은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땅을 깊게 파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할 경우 원자탄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김일성 1982).

이후 1976년부터 시작되어 연례적 행사로 개최되는 한미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에게 핵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 훈련에는 핵 폭격 모의훈련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미공군 전략폭격기인 ‘비-52’가 일본에서부터 남조선을 향해 폭격연습을 감행했으며, 대규모적 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김일성 1986). 이후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에서 역시, 냉전 이후 김일성과 같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미국이 한반도 내 불화를 키우고, 남조선과의 동족 대결을 일으킨다고 말하며, 남조선 내 미군주둔과 지

속적 군사연습을 반대한다(김동엽 2016).

이렇듯 한미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북한의 태도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내포된 공포심리와 철저한 생존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 두 패권국의 치열한 이권다툼은 종속되었으나, 한반도는 아직까지 냉전의 여파를 치르고 있다. 이처럼 냉전 하에서 강대국과 비서구권 약소국인 한반도가 경험한 역사는 상이했으며, 현재까지 한반도 내 냉전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방어전략이 거점인지 혹은 변경인가에 따라, 북한의 공세적 태도가 변이했음은 애치슨 선언 이후 전쟁 발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남 안보전략은 북한의 대남행동에 있어 유의미한 변수임을 한국전쟁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의 전체의 평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공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단행본

『김일성 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김일성 저작집』, 제3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국내 자료

단행본

Dussel, E. (2011).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그린비).

Gaddis, J. L. (2019). 『미국의 봉쇄전략: 냉전시대 미국 국가안보 정책의 비판적 평가』 (서울: 비봉출판사).

Westad, O. A. (2020). 『냉전의 지구사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서울: 예코리브르).

3. 논문

김동엽 (2016).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공포와 옴포 사이." 현대북한연구 19(2): 83-112.

김연수 (2003). "냉전의 종식과 북한의 안보전략변화: 북, 미관계에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7(1): 129-153.

김태우 (2012).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현실(83): 371-411.

남시욱 (2015). 딘 애치슨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한국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병원, et al. (2009).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전재성 (2020).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파주: 한울아카데미.

함택영 (2014)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

D'Orazio, V. (2012). "War games: North Korea's reaction to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2): 275-294.

Yoon, J.-H. (2011). "The effect of US foreign poli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ime series analysis of the post-cold war er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1(2): 255-288.